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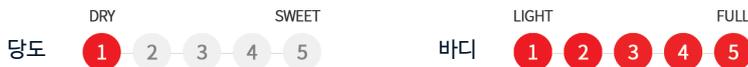


‘베린저 프리미엄 블랙 라벨’

베린저 큐 나파 밸리

Beringer Q Napa Valley

지역	미국 > 캘리포니아 > 나파 밸리		
포도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82% 메를로 7% 뽀띠 베르도 5% 카베르네 프랑 4% 말백 2%		
알코올	14.8%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6~18℃		
테이스팅 노트	블랙 프루츠 아로마와 허브, 오크 스파이스, 건조된 과일류의 нюан스가 복합적으로 표현된다. 와인이 숙성됨에 따라 입 안에서는 더욱 풍부한 바디감, 벨벳티한 텍스처, 확실한 탄닌, 초콜릿 노트를 느낄 수 있으며 지금 마셔도 감칠맛이 좋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숙성 시 더욱 좋은 표현력을 보여줄 것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치즈/ 훈제, 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퀀텀(Quantum)은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명칭으로, 각각의 퀀텀은 고유의 에센스를 전달해 더욱 웅장한 표현력을 보여주며 복합적인 시스템을 자동시킨다. '베린저'는 각 포도 품종이 유니크한 맛과 구조감을 제공하고 와인의 표현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신, 나파 밸리 내 주목할 만한 빈야드, 포도 품종 관리에 섬세한 케어를 기울여왔다. 퀀텀 레드 블렌드는 균형, 구조 및 탁월한 맛의 와인의 탄생하기까지 각 품종의 개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파 밸리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독특한 구획에서 수확된 포도들은 최종 블렌딩 과정까지 분리되어 있다. 각각의 퀀텀들은 카베르네 소비뇽의 베이스를 두고 보르도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메를로는 라운드한 텍스처와 부드러운 탄닌에 기여하며 카베르네 프랑은 뛰어난 컬러 표현, 뽀띠 베르도로 복합미, 말백 터치로 깊이를 더해 최종 블렌딩을 진행했다. 프렌치 오크배럴(67% NEW)에서 20개월 이상 숙성 시킨 후 1년간 병 숙성 후 출시된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91점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와이너리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인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로 18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의 정착한 독일인 형제 제이콥 베린저(Jacob Beringer)와 프레드릭 베린저(Fredrick Beringer)에 의해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파 밸리 와인의 개척자로 알려진 베린저는 139년의 역사동안 총 8명의 수석 와인메이커를 두고 최고의 와인에 대한 자신감과 나파 와인에 대한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다. 캐주얼 와인부터 플래그십 명품 나파 부티고 와인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 와인너리답게 금주령 시기에도 시기에도 미사주 전담 양조를 허가받았으며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 'Wine Spectator'가 선정한 '올해의 와인(Wine of the Year)'로 선택된 유일한 와인너리다.

이 외에도 'Wine Enthusiast', 'Wine&Spirit'으로부터 '올해의 와인너리'에 총 11번 선정되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